

“뉴노멀 환경조성 등 문화생태계 회복”

출범 10년 광주문화재단 성과·과제

광주학, 콜로키움사업으로 각광 뮤지컬 ‘광주’ 등 광주정신 확산 정책역량 갖춘 전문기관 도약해야

최근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재단)이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출범 당시 재단 건물 외벽에 걸린 캐치프레이즈가 ‘문화의 숲을 가꾸는 농부가 되겠습니다’였다. 이제는 가꿔진 숲을 토대로 실질적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높이고, 문화로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그동안 재단이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5월 광주정신을 예술로 승화시켰던 뮤지컬 ‘광주’, 관현악 편곡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이 그것이다. 또한 광주의 터무니를 찾기 위한 ‘도시의 뿌리를 찾는 광주학’은 광주 역사를 발굴하고 체계화하는 콜로키움 사업으로 각광을 받았다. 이밖에 미디어아트 특화공간, 예술과 시민의 문화공간 빛고을시민문화관도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했다.

다음은 지난 10년간 재단의 변화와 성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한 내용이다.

▲숫자로 보는 10년의 발자취=재단이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재단은 1842개 문화예술단체에 약 203억 원을 지원했다. 출범 초기인 2011년에 208개 단체에 13억 원을, 지난해에는 182개 단체에 21억 원을 지원했다. 2018년에는 204개 단체에 25억 원을 지원해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했다.

10년 간 문화예술 교육 단체 지원은 총 642개 단체에 115억 원이 지급됐다. 출범 초창기인 2011년에는 19개 단체에 4억3000만원이, 지난해에는 101개 단체에 16억 원이 지원됐다.

10년 간 예산액도 급증했다. 2011년 23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13억 원으로 약 80억 원 가량 증액됐다. 그러나 국비와 시비, 출연금을 제외하면 자체·기부금은 지난 10년간 27억 원에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1년 자체·기부금이 28억 원이었던 데 반해 2020년 자체·기부금은 55억 원에 그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뮤지컬 ‘광주’는 광주정신의 확산에 기여했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쳤다. 이는 10년 동안 메세나를 비롯한 재단 차원의 기부금 확충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문화자산 구축, 지역문화 싱크 탱크 역할 수행=재단 출범과 함께 주어진 사명 중 하나는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우리 속에 탄생한 작품이 ‘자스민 광주’였다. 작품 기조는 80년 광주의 희생에서 출발한 광주정신이었으며 이후에도 재단이 만드는 무대예술 창작 작품의 주요 흐름이 됐다.

이후 2012년 창작 무용극 ‘임을 위한 행진곡’, 최근 첫 선을 보인 ‘뮤지컬 광주’, 관현악 편곡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은 민주화운동을 예술적으로 승화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광주라는 지역의 뿌리를 찾는 ‘광주학’도 지역 문화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이미 서울학을 비롯해 인천학, 부산학, 충청학, 강원학 등이 지역학 진흥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아직까지 정치지형에서 영남과 대비되는 호남의 정체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호남의 독특한 정서와 문화 그리고 집합심성이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광주학은 근대 광주 선구자 고(故) 박선홍 선생의 ‘광주1백년’, ‘무등산’ 두 책이 주요한 계기가 됐으며 이후 광주학 콜로키움을 조직하고 광주학 포럼 및 광주학 총서 시리즈 발간 등을 통해 시민

과 결과물을 공유했다. 향후 광주의 과거나 역사 콘텐츠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지역학의 범주를 확장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다.

▲향후 과제와 전망= 이처럼 재단의 지난 10년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광주만의 콘텐츠 발굴 외에 지원 내실화,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반 조성을 통한 도시 브랜드 제고, 우수 공연 활성화 사업 등이 그렇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단은 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책 역량과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시 말해 정책과 아이디어, 문화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전문기관 도약이라는 과제가 주어졌.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문화환경에서 뉴노멀 환경 조성 및 문화생태계 회복,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인프라 구축은 향후 제2의 도약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또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토대로 소통하고, 제안된 의견을 정책사업화 하는 역량도 요구된다. 황봉년 대표는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흐름과 경향에 나타나는 변화의 핵심 요소를 파악 및 분석해 정책 수요를 예측해야 한다”며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적 의제를 사업화 해내는 도전이 재단에 주어졌 숙명이며 과제”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수 출신 마경덕 시인 선정상상인문학상

수상작 ‘근육들’ 외 4편

제2회 선정상상인문학상에 여수 출신 마경덕 시인(사진)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근육들’ 외 4편이며 상금 500만원.

선정상상인문학상 운영위원회와 ‘상상인’은 올해 선정상상인문학상에 마경덕 시인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상상인문학상은 소통과 미래지향적인 문학을 지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선정사업이 후원하고 도서출판 ‘상상인’과 문학상운영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심사를 맡은 홍일표 시인과 유성호 평론가는 수상작에 대해 “매우 안정적인 사유와 감각을 보여주는 일종의 서정적 범례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며 “과격이나 실험보다는 특유의 진정성과 감



율적으로 상투성을 돌파해가는 그만의 저력이 느껴졌다”고 평했다.

수상작품과 수상소감, 심사평 등은 ‘상상인’ 제3호에 소개될 예정이다.

지난 2003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마 시인은 그동안 시집 ‘신발론’, ‘글러브 중독자’, ‘사물의 입’ 등을 펴냈으며 제2회 북한강문학상 대상, 두레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롯데, AK, 강남문화원 등 시창작 강사로 활동 중이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월 4일 오후 5시 선정사업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 8~13일 열린다

무용·국악 등 10개 단체 참여

지역 예술인들이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펼치는 화합과 나눔의 장인 아트페스티벌이 오는 8~13일 열린다. 한국예총 광주광역시연합회(회장 임원식·예총)가 주최하는 문화예술축제 제12회 아트페스티벌이 그것.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예총 아트페스티벌은 광주지역 10개 문화예술단체 (건축가,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협회)가 참여한다. 협회 간 친선교류 및 예술적 성과를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장르의 벽을 넘어 문화예술 공동의 장으로 교류하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

행사는 전시와 공연으로 구분해 열린다. 전시아트페스티벌은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광주예총 백련갤러리 지호갤러리 일대에서 진행되며 공연아트페스티벌은 8~9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오후 7시 개최된다.

전시아트페스티벌은 광주문인협회에서 76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또한 광주건축가협회는 회원 작품 67점과 공모작 13점을, 광주미술협회는 광주회관을 대표하는 중견 및 청년작가 30명이, 광주사진작가협회는 44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공연아트페스티벌은 첫날은 오프닝 축하공연과 음악협회, 연극협회, 국악협회에서 준비한 공연이 진행된다. 둘째 날은 무용협회, 영화인협회, 연예 협회에서 준비한 공연과 폐막공연이 펼쳐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악협회 교방입춤 공연 장면

‘코로나19 위기탈출’ 사랑의 콘서트

1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사회복지법인 보훈봉사단과 사단법인 빛고을예술단은 오는 10일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코로나19 위기탈출’ 제724번째 사랑의 콘서트를 연다.

박광선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는 ‘진짜 맞쟁이’의 해남 출신 진국이(김명성)와 ‘만나볼래요’의 강진 출신 진이영(김진)이 초대

가수로 출연한다. 또 지스타의 ‘퓨전 난타’와 ‘앵콜’을 부른 김동규 가수의 7080통기타, 박용우 음향감독의 색소폰 연주, 김상기 예술총감독의 희극 ‘폼바’ 등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보훈봉사단은 도시농업사업,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빛고을예술단은 지난 2005년 8월 창립 후 지역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순회공연 등을 펼쳐오고 있다. 문의 010-6621-671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지스타의 ‘퓨전난타’.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작가와의 대화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제21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및 2021’ 전시 연계행사를 9일 오후 2시 농성동 하정웅미술관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어떤 날, 어떤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시 참여작가와 미술 평론가들이 참여, 작품 세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문소현·정정하·이윤희·문지영 작가와 김종길(경기도미술관), 이준희(건국대), 홍예슬(대전

시립미술관), 김대성(문학평론가) 등 평론가 4명이 참여한다.

이날 대화의 장에서는 초대작가가 작품 속에 표현하려했던 예술세계와 작가로 성장하기 위한 경험담, 미술비평가들이 본 작가의 작품세계 등에 대해 직접 들어보고 관람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한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